제3장
외교지평 확대

제1절 신남방정책 본격화 68
제2절 신북방정책 본격화 83
제3절 유럽 지역 외교 90
제4절 중남미 지역 외교 109
제5절 아프리카 · 중동 지역 외교 125
제6절 지역 간 외교 138

제1절
신남방정책 본격화

1 신남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 현황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우리의 핵심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아세안(ASEAN)·인도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3P[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②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③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총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18년 8월 범정부적 이행 기구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700만 달러→1,400만 달러)로 증액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내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과 획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장관급 협의체였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2019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하는 등 신남방정책 추진 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지향할 미래상으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인도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서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 동남아시아 지역 외교

1) 정상외교

(1)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2~24일 베트남에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쩐다이꽝(Tran Dai Quang) 국가주석은 3월 2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베트남의 새로운 25년을 여는 미래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쩐다이꽝 주석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 공항 건설 등 베트남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주석에게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쩐다이꽝 주석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신남방정책 기조하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인 다문화가정 지원과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개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착공식이 개최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 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등을 통해 양국의 상생번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인프라 협력 증진, 개발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2) 필리핀 대통령 공식 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3~5일 공식 방한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6월 4일 정상회담을 열고 정무, 사회·문화, 경제·통상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필리핀의 국가비전 2040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필리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그리고 양국 치안당국 간의 활발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더불어 양국 정상은 인프라, 에너지, 농업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신남방정책의 대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4대 중점협력 분야인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3)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1~13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7월 11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한·아세안 협력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통·인프라·에너지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핀테크·바이오·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간 청년 진출 및 우수 인재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여정에 큰 공헌을 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리셴룽 총리는 한반도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끈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기원한다고 했다.

(4)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9~11일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9월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2018년 격상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전철, 수력발전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 협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교통, 통신, 무역 등 제반 분야에서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혁신 역량 강화 관련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젊은 세대 간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Young Leaders' Dialogue)'를 신설하고 인류 공동의 과제인 해양, 환경, 해양안보 등 지역·글로벌 이슈 대응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국방·방산 협력과 같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협력해 온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과 잠수함 공동생산 등 방산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북 단일팀 출전 및 공동 입장을 지원하고 개막식에 남북 정상을 함께 초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준 데 감사를 표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각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5) 한 · 태국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2018년 10월 1일 한 · 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태국이 아시아 국가 중 6.25전쟁에 가장 먼저 파병한 데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1958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의 눈부신 발전을 축하하며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쁘라윳 총리는 축전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켜 정치 · 안보 ·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속적인 상호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향후 양국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6)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 계기 한 · 태국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8년 10월 19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및 양국 간의 경제, 무역, 문화 교류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에게 6.25전쟁 태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 정상은 태국의 6.25전쟁 파병 이후 발전해 온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제반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7)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 브루나이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 관계 및 한 · 아세안 관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11월 14일 문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 등이 더욱 증대될 것에 공감을 표했다. 통룬 총리는 라오스의 사회 · 경제

개발에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기반시설 및 건설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ICT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볼키아 국왕은 교량 건설을 비롯한 브루나이의 기반시설 개발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비전 2035' 국가발전전략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2) 총리급 외교

(1) 이낙연 국무총리,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계기 인도네시아 대통령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8월 20일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이낙연 국무총리, 베트남 국가주석 국장(國葬) 참석 및 베트남 · 캄보디아 총리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9월 25~26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국장에 참석하고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와 면담했다. 이낙연 총리와 응우옌쑤언푹 총리는 2019년이 한 ·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만큼 양국 간 제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두 총리는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발전해 서로가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 총리는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하며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주요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 · 아세안 다자협력 확대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3) 장관급 외교

(1) 강경화 외교장관, 싱가포르 공식 방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3월 7~9일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했다. 강 장관은 3월 8일 비비언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신남방정책,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한 ·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에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그와 함께 양국 장관은 항공 자유화,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항공기 수리 · 정비(MRO)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외교장관회담 이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예방하고 한반도 문제 및 신남방정책 등을 논의했다.

(2) 강경화 외교장관, 베트남 공식 방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3월 8~10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강 장관은 팜빙밍(Pham Binh Minh)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한 · 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을 협의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팜 부총리에게 우리 기업 및 교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했다. 팜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 · 아세안 관계 격상 의지를 환영하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하에 한 · 베트남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팜 부총리는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9일 쩐다이꽝 국가주석과 응우옌쑤언푹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정상급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과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 · 아세안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3) 강경화 외교장관, 태국 공식 방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7월 1~2일 태국을 공식 방문했다. 강 장관은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방안, 한 · 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신남방정책의 연계성 증진이 태국의 EEC(동부경제회랑), Thailand 4.0 등 경제정책과 접점이 있는 만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 · 아세안, 아세안+3, EAS, ARF 등 아세안 협의체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7월 2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예방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 노력에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한 · 태국 양자관계 및 한 · 아세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4)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방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18년 7월 26~27일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외교장관과 7월 26일 회담을 열고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한 ·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한 · 아세안 협력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2018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인도네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레트노 장관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에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 ·

아세안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5)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각국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8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8월 1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와 각각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 · 아세안 협력, 한반도 문제 및 양국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신남방정책과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아세안 각국의 호응을 요청했다. 각국 장관은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남방정책에 지지와 기대를 표명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 내용

국가	장관	회담 내용
라오스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외교장관	· 아타프주 댐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위로 표명 · 고위급 교류,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모색
말레이시아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외교장관	· 무역, 투자, 문화 · 인적 교류, ICT, 스타트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미얀마	쪼 틴(Kyaw Tin) 국제협력 장관	· 개발협력 등 상생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비자 면제 조치가 양국의 인적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	팜빙밍(Pham Binh Minh) 부총리 겸 외교장관	·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양국 간에 합의사항 충실 이행 추진
캄보디아	쁘락 소콘(Prak Sokhonn) 외교장관	· 경제와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브루나이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제2외교장관	· 양국 간 인프라 협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아세안 측의 기여를 요청했다. 각국 장관

은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기로 했다.

(6) 강경화 외교장관, 말레이시아 방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12월 20~21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현황, 실질협력 증진 방안, 인적 · 문화 교류, 한반도 정세 등 폭넓은 사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1960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4) 기타 양자 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

우리 정부는 정상 및 장관급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고위급 협의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일자/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2018.5.3, 서울	제5차 한 · 태국 정책협의회	우리 측: 외교부 제1차관 상대 측: 외교부 사무차관
2018.11.6, 마닐라	제7차 한 · 필리핀 정책협의회	우리 측: 외교부 제2차관 상대 측: 외교부 정책차관
2018.12.13, 서울	제4차 한 · 캄보디아 공동위원회	우리 측: 외교부 제1차관 상대 측: 외교부 차관

3 서남아 · 태평양 지역 외교

1) 정상외교

(1) 문재인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한 · 인도 정상회담(2018.7.10, 뉴델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8~11일 인도를 국빈 방문해 7월 10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한 · 인도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정례화에 합의하고 교역 · 인프라, 국방 · 방산, 과학 · 기술, 문화 · 인적 교류 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전기차, 보건 · 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하고 양국 관계가 지향할 미래상을 담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인도에서 추진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에서 양국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임을 서로 확인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인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2) 문재인 대통령, 뉴질랜드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2~4일 전통적 우호국이자 유사입장국인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와 12월 4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및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포용적 성장' 등 유사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교역 · 투자, 방산,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국민 간 교류 및 우호 증진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국민을 위한 뉴질랜드의 자동여권심사(e-Gate) 적용, 뉴질랜드 차세대 지도자 방한 초청사업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던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그와 함께 양국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Pacific Reset) 간 조화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3) 김정숙 여사, 인도 공식 방문

김정숙 여사는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2018년 11월 4~7일 인도를 공식 방문했다. 김정숙 여사는 11월 6일 인도 디왈리축제 개막식과 허왕후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양국 간 유사한 역사 · 문화적 유대관계 등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및 사비타 코빈드(Savita Kovind) 대통령 부인 면담,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외교장관 접견 등을 통해 양국 간 인적 · 문화적 교류 증진 및 우호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계속 노력하자고 했다.

(4) 다자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1월 17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 회담하고 호주의 6.25전쟁 참전과 1961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교역 · 투자, 인프라, 국방 · 방산,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

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기반시설 및 방산 사업에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호주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모리슨 총리는 우리 정부에 확고한 지지와 협력의 뜻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인 11월 17일 피터 오닐(Peter O'Neill) 파푸아뉴기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문 대통령이 1976년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교역·투자, 에너지·항만 인프라, 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 총리 외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8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카루 자야수리야(Karu Jayasuriya)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2017년 11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계속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프라, 개발, 금융, 과학기술, 농업, 교육, 스포츠 등 양자 간 다양한 실질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스리랑카가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3) 장관급 외교

(1)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7월 31일~8월 4일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해 8월 3일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한·뉴질랜드 관계와 정치·경제·문화 등 실질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강경화 외교장관, 스리랑카 총리 예방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아세안 지역회의 참석을 계기로 9월 12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ICT 분야 협력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3)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12월 18~19일 인도를 방문해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 제9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를 개최(12.19)했다. 양국 장관은 7월 문재인 대통령과 11월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 교류, 방산, 경제·과학기술, 인적·문화 교류 등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4) 기타 양자 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

우리 정부는 정상급 협의 외에도 서남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교류 및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일자/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2018.5.12, 다카	한 · 방글라데시 현안 협의	우리 측: 외교부 남아태국장 상대 측: 총리외교보좌관(장관급)
2018.5.14, 콜롬보	한 · 스리랑카 국장급 협의	우리 측: 외교부 남아태국장 상대 측: 외교부 양자담당 차관보
2018.6.6, 뉴델리	한 · 인도 외교차관회의	우리 측: 외교부 제1차관 상대 측: 외교부 차관
2018.6.7, 콜롬보	제2차 한 · 스리랑카 차관급 정책협의회	우리 측: 외교부 제1차관 상대 측: 외교부 차관
2018.7.18, 캔버라	제5차 한 · 호주 전략대화	우리 측: 외교부 차관보 상대 측: 외교부 차관보
2018.7.23, 서울	제4차 한 · 네팔 국장급 정책협의회	우리 측: 외교부 남아태국장 상대 측: 외교부 동북아국장
2018.8.24, 서울	제20차 한 · 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우리 측: 외교부 차관보 상대 측: 외교부 차관보
2018.10.29, 서울	제2차 한 · 인도 국가안보실 간 대화	우리 측: 국가안보실 2차장 상대 측: 국가안보 부보좌관
2018.11.7, 서울	제10차 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	우리 측: 외교부 제1차관 상대 측: 외교부 차관

제2절

신북방정책 본격화

2018년 6월 18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①소다자협력 활성화 ②통합 네트워크 구축 ③신성장동력 창출 ④인적 · 문화교류 확대 등으로 세분화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채택으로 향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교통 · 물류 및 에너지 · 인프라 연계를 위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한 · 러 및 한 · 중앙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1 러시아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극동개발 실질협력 강화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활발한 고위급 교

류가 이루어졌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시 한 · 러 양국은 기존 9개 다리 분야(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에 교육, 보건 · 의료, 환경 등 3가지 분야를 추가한 '9개 다리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양자회담 및 기조연설을 통해 9개 다리 분야 협력 성과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유라시아 · 극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어업, 산업, 경제, 과학기술, 환경, 항공 등 분야별 정부 간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됐다. 제12차 한 · 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5.16,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 의료, 에너지, 교통 · 물류, 수산, 지자체 간 협력, 통상 · 투자 증진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정상회담(4.27) 결과 남 · 북 · 러 3각 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 · 러 정상 간 통화(4.29)에서 남 · 북 · 러 3각 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 · 러 유관기관 간 철도, 전력, 가스 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1월에는 한 · 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 · 러 지방협력포럼이 출범해 양국 지방정부 간 경제 · 통상, 항만, 물류, 관광, 의료 · 교육 · 과학, 인적 · 문화교류, 항만 분야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포항선언'을 채택했다. 한 · 러 지방협력포럼을 계기로 우리 17개 지자체 및 러시아 극동 11개주 간 교역 · 투자 확대, 교통, 관광, 문화 · 예술, 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2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신북방정책 외연 확대

1) 한 · 중앙아 5개국 양자 협력

(1) 우즈베키스탄

2018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샵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통화했다. 양국 정상은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합의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압둘아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외교장관 초청으로 4월 17~18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 ·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강 장관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 및 이후 개최되는 북 · 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중앙아 역내 국가 간 화해 · 협력 정책에 힘입어 역내 우호협력 분위기가 괄목할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중앙아 정책 및 대아프가니스탄 정책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 ·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에서 강 장관과 카밀로프 장관은 한반도 및 중앙아 지역 정세와 양국 간 양자 · 지역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인 중앙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 각각 역내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역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카밀로프 장관은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2) 카자흐스탄

강경화 외교장관은 카이라트 압드라흐마노프(Kairat Abdrakhmanov)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018년 4월 16~17일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 · 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예방한 강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 장관은 자발적 핵 포기국이자 2017~2018년 중앙아 최초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중앙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인 카자흐스탄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임을 설명하며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넘어 한·카자흐스탄 실질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다변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 지역·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그간 양국 간에 활발히 추진된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를 위해 실질협력 분야를 더욱 다각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강 장관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 한·중앙아 5개국 간 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고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투르크메니스탄

강경화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018년 3월 30일 라쉬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수교 이래 최초로 공식 방한해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평화정착, 지역·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 등 포괄적인 분야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 에너지·인프라 협력 심화, 실질협력 분야 다변화,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 후 강 장관과 메레도프 부총리는 양국 외교부 간 교류 증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외교부 간 2018-2020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또한 정세균 대통령 특사는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이 건설한 투르크메니스탄 내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준공식 참석차 10

월 16~18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다. 정 특사는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해 플랜트의 성공적인 건설을 축하하고, 플랜트 건설에 기여한 우리나라의 기업인과 근로자를 격려했으며,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주재국 국회의장, 무랏겔디 메레도프(Muratgeldi Meredov) 석유가스 부총리와 면담했다. 정 특사는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으며 제2, 제3의 키얀리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투르크메니스탄이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키르기스스탄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은 2018년 11월 6일 제1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수석대표로 방한한 디나라 케멜로바(Dinara Kemelova) 키르기스스탄 외교차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실질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행정,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름다운 자연 및 민주주의 체제 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차관은 또한 우리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하고 키르기스스탄 측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 차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케멜로바 차관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5) 타지키스탄

제2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공동위가 2018년 10월 5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 대표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타지키스탄 측 대표로는 네마툴로 힉마툴로조다(Nematullo Khikmatullozoda) 경제개발통상부장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증진, 고용허가제, 개발협력, 문화·교육 분야 협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11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블라탈리 사이드(Davlatali Said) 타지키스탄 제1부총리 방한(11.7)을 계기로 한 · 타지키스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은 과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협력을 해온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드 부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교역 · 투자,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한국 기업이 전력 · 에너지 운용관리, 첨단 영농기술을 활용한 농업 및 농산물 가공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협력과 장학생 초청 사업이 확대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가 타지키스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 지역협력 외교

(1) 한 · 중앙아 카라반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해 제고 및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제8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가 2018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를 계기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한 · 키르기스스탄(10.3), 한 · 타지키스탄(10.5) 차관급 양자회담, 한 · 키르기스스탄 경제현안협의회(10.3), 한 · 타지키스탄 경제공동위(10.5) 등 정부 간 협의체가 다양하게 운영됐다. 이와 함께 한 ·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및 유관 분야 협력 세미나(10.1), 중앙아 역내 물류망 및 관광 분야 협력 세미나(10.2), 한 · 키르기스스탄 보건 · 의료 심포지엄(10.4) 등 민관 행사도 다양하게 개최됐다.

(2)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2018년 10월 8~11일 우리 국회와 러시아 및 터키 의회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공동개최국 3개국과 아시아 12개국, 중동 7개국, 독립국가연합(CIS) 7개국, 유럽 11개국, 기타 5개국 등 총 45개국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해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 누를란 니그마툴린(Nurlan Nigmatulin)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등과 면담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의장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안탈리아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 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제14조)"는 내용의 우리 정책을 지지하는 문구가 반영됐다.

제3절
유럽 지역 외교

1 정상외교

1)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1) 에스토니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6~12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2월 6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 및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분야 협력과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칼률라이드 대통령의 방한이 1991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한 ·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 리투아니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7~11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2월 7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데 사의를 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올림픽 이후에도 평화를 이어가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3) 독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7~11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과 2월 8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실질협력 및 한반도 ·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은 2017년 7월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개최된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으로서 양국은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 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와 함께 양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효 7년 차를 맞는 한 · EU FTA가 자유무역 · 개방경제의 우월함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동 · 서독 간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으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4) 스위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7~11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스위스 대통령과 2월 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2016년 7월 요한 슈나이더-암만(Johann Schneider-Ammann) 대통령의 방한과 이번 베르세 대통령의 방한 등 정상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 보건산업,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왔음에 사의를 표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스위스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베르세 대통령은 스위스가 한반도 문제 관련 대화의 장을 제공해 왔음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 폴란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8~11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2월 8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심화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방산협력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음에 사의를 표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6) 라트비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8~15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라이몬츠 베요니스(Raimonds Vējonis) 라트비아 대통령과 2월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무역 · 투자 증진 방안과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991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라트비아 대통령이 방한한 점을 거론하고 양국 정상은 이번 방한을 통해 무역 ·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라트비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8년 내 한 · 발트3국 경제공동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7) 네덜란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9~11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2월 9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산업, 미래세대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8) 노르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5~1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와 2월 15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솔베르그 총리를 비롯해 호콘 망누스(Haakon Magnus) 왕세자 등 왕실 인사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조선 및 해양산업, ICT, 녹색성장, 지속가능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2019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9) 슬로베니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6~21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보루

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2월 20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교역 · 투자 및 물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공조,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량이 지난 10년간 20배 이상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제조업 · 의약품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투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자동차 · 철강 기업의 중동부 유럽 진출 관문인 코페르항을 통한 해운, 육로 수송 등 물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을 지지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2) 한 · 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9~11일 공식 방한한 안드레이 키스카(Andrej Kiska)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4월 10일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협력, 과학기술 · 연구개발(R&D)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무대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수교한 이래 25년간 교역량이 160배 이상 증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원전 및 브라티슬라바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키스카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제도, 청년 스타트업 정책,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으며,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슬로바키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3) 한 · 터키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2~3일간 국빈 방한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과 회담(5.2)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2012년에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내에서 서비스 투자협정을 조속히 발효시키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과학 · 기술 및 R&D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했으며, 양국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4) 한 · 프랑스 정상회담



한 · 프랑스 정상회담(2018.10.15, 파리)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3~16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15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현안 해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2004년에 수립된 '한 · 불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해 교역 · 투자, 과학기술, 신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테러 등 국제사회 문제 대응에서도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5) 한 · 이탈리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6~18일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10월 17일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과 면담하고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과 콘테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고 정무 및 국방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문화 ·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공식방문을 계기로 국방협력협정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차관급 '전략대화'와 '산업에너지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해 2019년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이탈리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고, 콘테 총리는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6) 교황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7~18일 교황청 공식 방문을 계기로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4.27 남북정상회담, 북 · 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계기마다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성 베드로성당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7) 한 · 영국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제12차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8년 10월 19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메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 한 · 독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제12차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브뤼셀에서 2018년 10월 19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의 독일 공식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 · 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환영했다.

9) 한 · EU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제12차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EU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 해결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 정상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 협정(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자유 · 다자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한 · EU 간 호혜적인 교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불법어업 방지 및 난민 등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0) 한 · 덴마크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9~20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0일 코펜하겐에서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마그레테 2세(Margrethe II) 덴마크 여왕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2019년이 한 · 덴마크 수교 60주년이자 '한 · 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돼 양국 파트너십과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 · 덴마크 녹색성장 동맹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체계라는 것과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라스무센 총리가 주최한 제1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 정신을 강조했다.

11) 한 · 체코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 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참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바비쉬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과 상호 상주공관을 운영 중인 체코로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 한 · 네덜란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2 총리급 외교

1) 불어권국제기구(OIF) 사무총장 방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2018년 2월 7~12일 방한한 미카엘 장(Michaëlle Jean) OIF 사무총장과 2월 12일 대담하고 한 · OIF 간 협력 증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협력, 남북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2016년 11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국가 최초로 OIF에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한국과 프랑스어권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됐다고 한 뒤 특히 OIF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간 업무협약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프랑스어 사용 및 프랑스어권 국가 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장 사무총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으며,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지속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 에스토니아 총리 방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2월 12~14일 방한한 위리 라타스(Jüri Ratas) 에스토니아 총리와 2월 14일 면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디지털 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뿐만 아니라 라타스 총리도 방한하는 등 에스토니아 정부가 보여준 큰 관심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 총리는 이번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한 · 발트3국 경제공동위를 통해 전개될 실질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3) 핀란드 총리 방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2018년 2월 17~22일 방한한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핀란드 총리와 2월 19일 회담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45년간 외교안보, 경제통상,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방산, 환경, 북극개발 등 협력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필레 총리는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 서울~헬싱키 직항편 증편 및 부산~헬싱키 신규 노선 개설, 한국의 핀란드 투자 등 양국협력 증진에 관한 기대를 표명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 총리의 핀란드 방문을 요청했다.

4) 국무총리,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순방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5월 24~26일 우리나라 국무총리로는 14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해 5월 25일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와 회담,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가졌다.

쿠르츠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2017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2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한국 기업의 오스트리아 투자가 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 · R&D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와 함께 2018년 하반기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한 · EU 차원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현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5월 27~29일 국무총리로는 28년 만에 아일랜드를 방문해 총리회담을 열고 마이클 대니얼 히긴스(Michael Daniel Higgins)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동포간담회와 친한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총리는 리오 바라드커(Leo Varadkar)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역, 투자, 교육, 일자리 창출, 국제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 룩셈부르크 총리 방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7월 1~3일 룩셈부르크 정부 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총리와 공식 회담, 공동 기자회견 및 만찬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심화, 실질협력 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양국 총리는 양국 간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므로 교역 및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양국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공유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EU의 평화 · 번영 과정에 기여해 온 룩셈부르크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6) 국무총리, 리히텐슈타인 대공세자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12월 3~5일 방한한 알로이스(Alois) 리히텐슈타인 대공세자를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 · 문화 ·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유럽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리히텐슈타인이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를 적극 지지해 준 데 사의를 표명하고, 리히텐슈타인의 강점인 혁신형 중소기업, 핀테크 산업 육성 분야 등에서 협력를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에 알로이스 대공세자는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 총리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으며 알로이스 대공세자는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3 장관급 외교

1) 한 · 영국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영국과 2차례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현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강 장관은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7월 18일 런던에서 제러미 헌트(Jeremy Hunt) 신임 영국 외교장관과 제4차 한 · 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2차례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긴밀한 교역 · 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 한 · 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2018년 1월 26일 로마에서 안젤리노 알파노(Angelino Alfano)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평창동계

올림픽,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탈리아가 2017년 G7 의장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대북 제재 · 압박과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3) 한 · 교황청 외교장관회담

2018년 한 · 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이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폴 갤러거(Paul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과 3차례 외교장관회담(1.26 교황청, 7.6 서울, 9.28 뉴욕)을 통해 한 · 교황청 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했다. 강 장관은 갤러거 장관과 회담하며 한반도 평화 ·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 · 교황청 관계 발전, 기후변화 및 난민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4) 한 · 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외교장관과 2018년 2차례 외교회담(2.10, 3.18)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르드리앙 장관과 2018년 2월 10일 회담했다. 양 장관은 경제, 국방, 교육, 과학 등 다방면에서 전개된 양국 간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은 3월 18일 EU 외교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르드리앙 장관과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한 · 프랑스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5)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에드가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외교장관과 2018년 2월 14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 회담은 양국 간 첫 외교장관회담으로 정무 · 경제 등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 장관은 2월 13일 개최된 한 · 라트비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무역 · 투자 ·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6)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외교장관회담

(1) 헝가리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2018년 2월 26일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 지원,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2019년 한 · 헝가리 수교 30주년 및 우리 북방외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씨야르토 장관은 헝가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활동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 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헝가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데 대해 씨야르토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헝가리는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2) 스위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해 2018년 2월 26일 이그나지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및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의 방한(2.7~11)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관계 진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2월 20일 한 · 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환영하고 2018년 2월 양국 간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양국이 보건 ·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강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위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카시스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스위스는 1953년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7)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마르고트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 스웨덴 외교장관과 2018년 2월 19일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고위 인사교류 활성화 등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교역 · 투자 활성화 등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EU 외교이사회를 계기로 3월 18일 발스트룀 장관과 두 번째 회담을 열고, 한반도정세 변화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강 장관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이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7~2018년)인 스웨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8)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티모 소이니(Timo Soini) 핀

란드 외교장관과 2018년 2월 22일 회담을 열었다. 양국 장관은 2018년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대북정책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한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기반해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인적교류, 북극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 한·EU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3월 18일과 8월 6일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2차례 회담하고 한·EU 협력 증진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2018년 한·EU 수교 55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다층적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자유 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0)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제1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2018.7.26, 서울)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7월 25~26일 공식 방한한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장관과 7월 26일 제1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 현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주요 국제 현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

양국 장관은 수교 13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전략대화의 정례화뿐 아니라, 양국 외교부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 채널을 제도화·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와 함께 양국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 규범에 입각한 세계질서에 관한 공통의 신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향후 한·EU, G20,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그간 독일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마스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1)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마리야 페이치노비치 부리치(Marija Pejčinović Burić)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2018년 10월 24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주요 현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2018년은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이 개관되고 인천~자그레브 직항로가 개설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보건·의료,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등 유망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2)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 테오도르 멜레쉬카누(Teodor Meleşcan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2018년 11월 23일 서울에서 회담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단기간에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18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양국 관계 도약의 새로운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다. 또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한반도 정세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루마니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루마니아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한국 기업의 활발한 루마니아 진출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 · EU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교역 ·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 학술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제4절

중남미 지역 외교

1 정상외교

1) 한 · 칠레 정상회담

2018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중남미 정상과 개최한 양자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한 · 칠레 FTA 개선 협상,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 양국의 경제 · 통상 관계의 실질적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4대 중점 분야(전자정부 등 칠레 현대화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경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 한 ·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한 ·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2018.12.1,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한 ·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협정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됐다.

2 특사외교

2018년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등 중남미 5개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각국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공고한 신뢰관계를 재확인했다.

1) 칠레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진영 대통령 특사는 2018년 3월 9~12일 칠레를 방문해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3.11)에 참석했다. 특사단은 3월 10일 피녜라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칠레와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2)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조정식 대통령 특사는 2018년 5월 6~9일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카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 취임식(5.8)에 참석했다. 또한 조 특사는 알바라도 대통령을 예방(5.7)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알바라도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3)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우원식 대통령 특사는 2018년 8월 5~8일 콜롬비아를 방문해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8.7)에 참석했다. 우원식 특사는 두케 신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정부 간 공고한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다.

4)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우상호 대통령 특사는 2018년 8월 12~17일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8.15)에 참석해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5)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11월 30일~12월 2일 멕시코를 방문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12.1)에 경축특사로 참석했다. 강 장관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 및 양국 관계 강화 희망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으며 양국 간 공고한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다.

3 총리급 외교

1) 국무총리,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회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3월 14~16일 카리브 지역의 중심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다닐로 메디나(Danilo Medina)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고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제 · 통상 교류 증진 방안, 에너지 · 인프라 · ICT 분야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2) 국무총리, 브라질 대통령 예방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3월 19일 제8차 세계물포럼 참석차 브라질리아를 방문해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브라질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총리는 한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교섭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간 교역 ·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4 장관급 외교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중남미 12개국 외교 장 ·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동 선언문 서명식(5.25)을 위해 방한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외교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중남미의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는 5월과 9월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대화 모멘텀을 이어 나갔다.

1) 한 · 쿠바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5월 10일 쿠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íguez) 쿠바 외교장관과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실질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강 장관은 9월 26일 제7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다시 양자회담을 열고 쿠바 정부와 고위급 대화 모멘텀을 이어갔다.

2) 한 · 브라질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계기로 방한한 누네스 페헤이라(Nunes Ferreira) 브라질 외교장관과 2018년 5월 25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정치 ·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라질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7년 3월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작업에 협조한 브라질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 한 · 파라과이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계기로 방한한 엘라디오 로이사가(Eladio Loizaga) 파라과이 외교장관과 2018년 5월 25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강 장관은 2018년 상반기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파라과이가 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데 사의를 표했다.

4) 한 · 우루과이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계기로 방한한 로돌포 닌 노보아(Rodolfo Nin Novoa) 우루과이 외교장관과 2018년 5월 25일 회담하고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작업 관련 협조,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작업에 협조한 우루과이 정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5) 한 · 칠레 외교장관회담

세계경제포럼(WEF) 아세안 지역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9월 11일 로베르토 암푸에로(Roberto Ampuero) 칠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평가, 한반도 및 중남미 정세, 다자 협력, 경제통상 협력, 실질 분야 협력 등 제반 협력에 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6) 한 · 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9월 26일 유엔 본부에서 호르헤 마르셀로 포리(Jorge Marcelo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강 장관은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원활한 타결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으며 유엔과 G20 등 국제무대에서 다자주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7) 한 · 콜롬비아 외교장관회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9월 27일 카를로스 트루히요(Carlos Trujillo)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회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콜롬비아 평화협정 이행 계획 등 양국의 최근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이후 트루히요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2018년 12월 15~19일 공식 방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2월 17일 트루히요 장관과 한 · 콜롬비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 인프라 구축, 전자조달, 지식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트루히요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8) 한 · 카리브 3개국 장 · 차관 공동 면담

2018년 10월 30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8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차 방한한 루이스 힐턴 스트레이커(Louis Hilton Straker)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제롬 월컷(Jerome Walcott) 바베이도스 외교장관, 피어널 찰스(Pearnel Charles Jr.) 자메이카 외교차관을 공동으로 면담해 한반도 정세,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 지역 간 협력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9) 파나마 대통령 예방 및 한 · 파나마 외교장관회담

2018년 11월 29~30일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11월 30일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해 한 · 파나마 간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사벨 데 생 말로(Isabel de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해운 · 물류 협력, 한 · 중미 FTA, 전자정부 협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 한 · 멕시코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11월 30일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신임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글로벌 무대 협력, 통상협력, 인프라 · 에너지 분야 투자 등 멕시코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5 양자 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

우리 정부는 2018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과 각급에서 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분야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일자/장소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18.3.26, 키토	루르데스 푸마 (Lourdes Puma)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보	· 제6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원회 개최 · 경제 · 투자 협력, 개발협력, 인프라, 문화, 교육 등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
2018.5.22, 부에노스 아이레스	오라시오 레이세르 (Horacio Reyser) 아르헨티나 외교부 경제차관	· G20 외교장관회의(5.20~21) 계기 한 · 아르헨티나 외교차관회담 ·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 정무 및 다자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018.7.18, 라파스	리카르도 하비에르 마르티네스(Ricardo Javier Martínez) 볼리비아 외교부 양자국장	· 제8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원회 개최 · 양자 관계 및 고위급 인사 교류 평가, 건설 · 인프라, 경제, 영사, 문화 부문 등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
2018.8.10, 서울	마리아 나바로 (Maria Navarro) 파나마 외교부 다자협력차관	· 한 · 파나마 외교차관 면담 · KF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 참석차 방한해 개발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 교환
2018.9.5, 서울	엔히키 사르징야 (Henrique Sardinh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	· 제10차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무역 · 투자,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인프라 · 과학기술 ·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 교환
2018.10.11, 서울	로레나 아길라르 (Lorena Aguilar) 코스타리카 외교부 차관	· 한 ·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 양국 관계 및 분야별 실질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

일자/장소	면담 대상	주요 내용
2018.11.6, 산살바도르	호르헤 아란다 (Jorge Aranda) 엘살바도르 대외정책총국장	· 제3차 한 · 엘살바도르 정책협의회 개최 · 양측은 우호관계 지속 발전 및 협력 분야 다변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6 의회 간 교류

2018년 한 · 중남미 협력포럼 의원단, 각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주요 중남미 국가를 방문해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의회 외교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에콰도르 국회외교위원장 및 온두라스 의회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유력인사초청사업 참석차 방한했으며, 멕시코 상원의장이 방한해 이낙연 국무총리 및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등 중남미 국가의 주요 의회 인사도 방한해 의회 간 교류를 지속했다.

일자	내용
2018.1.17~18	국회 태권도연맹 멕시코 방문
2018.1.17~20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 파나마, 멕시코 방문
2018.1.21~26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멕시코, 칠레 방문
2018.1.21~26	에르네스토 코르데로(Ernesto Cordero) 멕시코 상원의장 방한
2018.2.27~3.1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연방하원의원 방한
2018.7.3	로하스 에르난데스(Rojas Hernandez) 멕시코 상원외교위원장 방한
2018.7.19~24	한 · 중남미 협력포럼 의원단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방문
2018.7.28~31	한 · 칠레 의원친선협회 칠레 방문
2018.7.31~8.3	한 · 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아르헨티나 방문
2018.8.1~7	한 · 중남미 협력포럼 의원단 브라질, 페루 방문

일자	내용
2018.8.29~9.1	한 · 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콜롬비아 방문
2018.9.1~4	한 · 에콰도르 의원친선협회 에콰도르 방문
2018.9.16~22	에스더 쿠에스타(Esther Cuesta) 에콰도르 국회외교위원장 방한
2018.9.16~22	글로리아 보니야(Gloria Bonilla) 온두라스 의회국제관계위원장 방한
2018.10.15	제13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계기 문희상 국회의장 · 페데리코 피네도(Federico Pinedo) 아르헨티나 상원 임시의장 면담
2018.10.29~11.2	모린 페인히먼(Maureen Payne-Hyman) 앤티가바부다 상원의원 방한
2018.10.31~11.3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제5차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방문

7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력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1],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태평양동맹(PA) 등 중남미 · 카리브 지역의 각종 지역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1)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과 협력

2018년 1월에는 제8차 외교장관회의(2017년 8월, 부산)에서 창립된 FEALAC 기금의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돼 최초의 범 FEALAC 협력 사업이 승인됐다. 11월에는 제19차 FEALAC 고위관리회의(SOM) 및 제2차 기금운영위원회 회의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돼 2019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와 함께 우리 측 제안으로 2016년부터 개최돼 온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가 2018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려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 결과 문서인 부

1) FEALAC(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지역 36개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양 지역의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 1999년 9월 공식 출범했다.

산선언(신행동계획)의 후속조치와 기금의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한편 외교부는 FEALAC의 국내 인지도 제고 및 회원국 공관원 간 교류 증진을 위해 2018년 7월 FEALAC 회원국 주한 대사관 실무외교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FEALAC 서울 클럽'을 창설했다. 특히 제2회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문화(김장)를 체험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나눔으로써 회원국 외교관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연대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자	장소	행사명
2018.1.30	서울	제1차 FEALAC 기금운영위원회 회의
2018.4.10~11	광주	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회의
2018.7.19	서울	FEALAC 서울 클럽(Seoul Club) 출범
2018.8.27~30	서울	2018 FEALAC Youth Summit 개최
2018.9.27	뉴욕	제3차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2018.11.20~21	비엔티안	제19차 FEALAC 고위관리회의(SOM) 및 제2차 기금운영위원회 회의
2018.12.20	서울	제2회 FEALAC 서울 클럽

2)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와 협력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5월 7~11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총회에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2018년 한 · ECLAC 협력기금 협정서'에 서명했다.

3)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력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메르코수르 4개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과 함께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9월 11

일부터 15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제1차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27일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한 · 브라질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4)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 협력

우리나라는 2018년 PA 차관회의(6월, 멕시코)와 제13차 PA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옵서버 초청 장관급 회의(7월, 멕시코) 등에 참석했다. 제13차 PA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상국으로 선언됐고 외교부는 첫 협력 사업으로 한 · PA 협력 포럼을 2018년 12월 리마에서 개최했다.

5)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협력

외교부는 2018년 10월 스페인에서 한 ·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옵서버 가입 2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18년 워크숍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개최되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례와 정책을 공유했다.

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외교부는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8년에는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미주기구(OAS), 중미통합체제(SICA) 등 12개의 중남미 지역기구에 총 27명의 우리 청년을 인턴으로 파견했다.

2018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현황

파견 기구	인원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3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2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2
유엔 중남미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4
국제노동기구(ILO) 중남미지역본부	2
미주기구(OAS)	4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OEI) 파라과이 사무소	2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OEI) 온두라스 사무소	1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2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1
중미통합체제(SICA)	2
이베로아메리카사무국(SEGIB)	2
합계	27

8 한 · 중남미 포괄적 협력 증진

1) 2018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외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 한 · 중남미 협력'을 주제로 2018년 6월 28~29일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강경화 외교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내 인사와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중남미 내 스마트시티 · 도시재생 분야 장 ·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인사, 전문가, 기업인 등 각계 인사와 학생, 언론인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협력포럼은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특히



2018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2018.6.28~29, 서울)

2018년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를 다루어 한 · 중남미 협력 논의의 미래 지향성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대중남미 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2)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2018년 8월 5~11일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 5개국의 장 · 차관급 인사[2]를 초청했다. 이들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방문해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무역협회(KITA)가 공동주최한 'KF-KITA 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 · 중남미의 경제 · 외교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3) 제8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

외교부는 2018년 10월 31일 서울에서 '한 · 카리브 평화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8차 한 · 카리브 고위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8개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통일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카리브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방안, 한 · 카리브 지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2)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 장관,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업부 차관, 파나마 외교협력부 차관, 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SELA) 사무총장.

4) 제7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2018년 11월 15일 '제7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가 외교부 · 법무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는 중남미 5개국(엘살바도르 · 파나마 · 도미니카공화국) 교정본부장, 교정청 차장(온두라스), 법무부 교정국장(코스타리카) 등 국내외 관계인사 120여 명이 참석해 한 · 중남미 간 교정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5) 대중남미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파견

외교부는 2018년 신산업 분야 수출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중남미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시기	협력 주제	대상 국가	주요 활동
2018.4월	보건의료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제약산업 협력포럼, 제약의료기기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등
2018.5월	전자정부	페루, 파라과이	전자정부 협력포럼,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별 담당기관 면담 등
2018.11월	스마트팜	에콰도르, 우루과이	스마트 농업 협력포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간담회 등

6) 중남미 자원 · 인프라 · 신산업 협력센터[3] 운영

중남미 자원 · 인프라 · 신산업 협력센터는 2018년 12월 '2018 중미 인프라 · 플랜트 시장 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공공기관, 학계, 중미경제통합은행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미 인프라 · 플랜트 시장 현황 및 전망, 다자개발은행 협력 방안, 한 · 중미 FTA 전망, 한국과 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 전망 등이 소개됐다.

3) 홈페이지(energia.mofa.go.kr) 운영 및 월간 웹진 〈Latin Energy & Resources〉, 입찰정보, 주간동향,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중남미의 자원 · 인프라 · 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 활동 및 기업 상담을 진행한다.

7) 한 · 중 · 일 중남미국장 회의

외교부는 2018년 3월 서울에서 제11차 한 · 중 · 일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를 개최해 중남미 국가와 다층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일본 및 중국과도 각각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FEALAC, ECLAC 등 중남미 주요 싱크탱크와 협력, 중남미 체류 재외동포 지원 정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9 대중남미 국민외교 강화

외교부는 2018년 6월 대중남미 국민외교 플랫폼 '화요라틴광장'을 출범시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남미 외교를 실현했다.

시기 및 장소	주 제	주요 내용
2018.6월 서울	화요라틴광장 출범 및 운영방안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요라틴광장 운영방식 제안
2018.8월 서울	중남미 정책토크쇼 시리즈 1 글로벌 무역전쟁과 중남미	미 · 중 무역 갈등에 따른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 모색,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주요 결과 공유
2018.11월 대구	찾아가는 라틴광장 1 대구가톨릭대학교 편	대중남미 외교정책, 청년 중남미 진출 방안에 대한 강연 및 소통
2018.12월 서울	중남미 이야기 1 라틴커피 이야기	대중에게 친숙한 라틴커피에 얽힌 외교적 함의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 및 상호 소통

제5절

아프리카 · 중동 지역 외교

1 정상외교

1) 한 ·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4~2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외교 · 국방 2+2 차관급 협의체,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신설 등 대화채널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외교장관 전략대화 활성화 및 경제공동위의 연례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정례적으로 심층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 원전 · 인프라 · 국방 · 방산 ·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신기술 및 미래성장 분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 밖에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 참석, 아크부대 방문,

아부다비 주요 각료 접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두바이 통치자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2) 한 · 이집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2018년 9월 26일 이집트의 압둘팟타흐 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급 및 장관급 등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활발하게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가 역내 핵심 국가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시시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집트가 수에즈운하를 활용한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향후 협력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은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사회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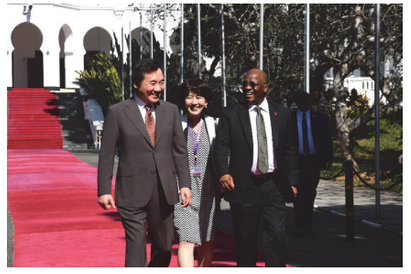
3) 한 · 남아공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대통령과 2018년 12월 1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의 6.25전쟁 참전부터 시작해 한국이 남아공의 매우 특별한 파트너로서 정치 ·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내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있는 남아공과 경제협력 강화 및 문화 ·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남아공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2 총리 외교

1) 국무총리 아프리카(케냐 · 탄자니아) 순방



이낙연 국무총리 탄자니아 공식 방문
(2018.7.21~23)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7월 19~21일 케냐를 공식 방문해 7월 20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 예방,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부통령 회담 및 공식 오찬, 한 · 케냐 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가졌다.

케냐타 대통령 예방 시 이 총리는 케냐가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이자 아프리카 진출 관문으로서 양국 간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우리 기업의 케냐 진출 확대를 위한 케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한국이 케냐의 경제발전 모델로서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해 양국이 상호 호혜적 발전을 희망한다고 했다. 케냐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 국정과제(제조업, 식량안보, 보편적 의료, 안정된 주거)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7월 21~23일 탄자니아를 공식 방문해 7월 23일 존 마구풀리(John Magufuli) 탄자니아 대통령 예방, 카심 마잘리와 마잘리와(Kassim Majaliwa Majaliwa) 탄자니아 총리 회담 및 공식 오찬, 한 · 탄자니아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新)샐린더 교량 공사 계약 체결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구풀리 대통령 예방 시 이 총리는 철도, 교량, 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인 총리의 공식 방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프라 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2) 국무총리 오만 공식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7월 23~25일 오만을 공식 방문해 아사드 알 사이드(Assad Al Said) 오만 대외관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 및 공식오찬, 오만 경제 각료[4] 합동 접견, 한 · 오만 비즈니스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보냈다.

이 총리는 아사드 부총리와 회담하면서 양국이 수교 이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오만의 국가 개발전략인 '비전 2020', '비전 2040' 추진 과정에 한국 기업의 동참을 희망하면서 에너지, 철도,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보건, 수산, 국방, 치안 등 신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합의했다.

3) 국무총리 마그레브 3개국 공식 순방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12월 16~22일 마그레브 3개국(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을 공식 방문해 여타 중동 지역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마그레브 지역 국가와 실질협력을 증진시키고 마그레브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원 및 교역 · 투자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개발협력 현장을 점검하고 순방 대상국의 국가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 특성에 맞는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와 함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일관된 지지 요청에 3개국 모두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의 진전을 축하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첫 순방국인 알제리 방문(12.16~18)은 1990년 양국 수교 이래 한국 국무총리로는 처음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방문기간 중 이 총리는 아메드 우야히아(Ahmed Ouyahia) 총리와 회담 및 공식오찬, 압델카데르 벤살라(Abdelkader Bensalah) 상원의장 면담, 한 · 알제리 비즈니스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활성화 방안 및 양자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실질협력 증대, 우리 기업의 대알제리 진출 · 투자 확대, 지역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4) 무함마드 알 룸히(Mohammed Al Rumhy) 석유가스부장관, 알리 알 수나이디(Ali Al Sunaidi) 상공부장관 등

이 총리는 튀니지 방문 기간(12.18~20) 중 베지 카이드 에셉시(Beji Caid Essebsi) 대통령 예방 및 유세프 샤헤드(Youssef Chahed) 총리와 회담, 한 · 튀니지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으로 교역 · 투자, 전자정부, 개발협력, 국방,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모로코 방문 기간(12.20~22) 중 이 총리는 사드 에딘 엘 오트마니(Saad Eddine El Othmani) 정부 수반(총리)과 회담 및 만찬, 하비브 엘 말키(Habib El Malki) 하원의장 면담, 한 · 모로코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두 총리의 만남은 2018년 한 해에만 세 번째 이루어졌다. 양측은 최근 양국 관계가 급속히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고, 경제 · 통상, 개발협력, 신재생에너지, 건설 · 인프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3 장관급 외교

1) 한 · 탄자니아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1월 31일 주한 탄자니아대사관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어거스틴 마히가(Augustine Mahiga) 탄자니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측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점협력대상국이며 아프리카 내 주요 자원부국으로서 안정된 거버넌스하에 발전 중인 탄자니아와 경제 · 관광 ·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와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히가 외교장관은 2017년 4월 한-탄자니아 수교 25주년 계기 방한이 취임 이래 최초의 아시아 국가 방문이었던 만큼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측의 2018년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주한 탄자니아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대탄자니아 개발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탄

자니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우리 정부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2) 한 · 튀니지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 튀니지 측 수석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케마이스 지나우이(Khemaies Jhinaoui) 튀니지 외교장관과 2018년 4월 23일 양국 수석대표 간 사전면담 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 · 튀니지 양국 관계 평가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한국과 튀니지 양국이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1969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나우이 장관은 튀니지가 민주화 진전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 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나우이 장관은 특히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 민주화와 경제 발전 모두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3) 제3차 한 ·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강경화 외교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2018년 7월 3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제3차 한 · UAE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2018년 3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교 · 안보 등을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 예멘 및 이란 등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국 기업의 UAE 진출 확대 등에 압둘라 외교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압둘라 외교장관은 UAE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의 평화 구축 및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4) 한 · 카타르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8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사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 · 카타르 관계 현황 및 주요 현안,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최대 LNG 공급국인 카타르와 오랜 기간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보건 · 의료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 · 다변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무함마드 외교장관은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이 카타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

5) 한 · 이란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7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8년 9월 27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 이란 외교장관회담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경제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 및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상호 지지하고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4 기타 양자 교류

우리 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 중동 지역 국가들과 외교 관계의 심화 · 확대를 위해 다수의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고 다방면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튀니지, 에티오피아, UAE, 이스라엘 등 아프리카 ·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기구와 공동위원회 및 양자정책협의회를 다수 개최해 우리와 아프리카 · 중동 지역 간 협력의 외연을 확대했다.

공동위원회

일자/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2018.4.23, 서울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	· 우리측: 외교장관 · 상대측: 외교장관	· 경제 · 통상, 개발협력, 과학기술 · ICT, 문화 · 관광,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 논의
2018.10.29~30, 서울	제7차 한 · 모로코 공동위원회	· 우리측: 경제외교조정관 · 상대측: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 경제 · 통상, 기술협력, 개발협력, 교육 ·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 현황 점검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양자 정책협의회

일자/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2018.4.12, 서울	제7차 한 · 수단 정책협의회	· 우리측: 경제외교조정관 · 상대측: 외교부 차관	· 미국의 대수단 제재 해제 이후 양국 협력방안,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2018.6.5, 아디스아바바	예비 한 · AU 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AU 상주대표위원회 다자협력소위 의장	· 한 · 아프리카 파트너십 발전방향, 한 ·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현황, 향후 협의 계획 등 논의
2018.6.5, 아디스아바바	제1차 한 · 에티오피아 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아태국장	· 양국관계평가, 경제 · 개발협력, 국제무대협력, 지역정세 등 논의
2018.6.27, 다르에스살람	제6차 한 · 탄자니아 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심의관 · 상대측: 아주국장대리	· 양국관계평가, 경제통상협력, 개발협력, 국제무대협력, 지역정세 등 논의
2018.10.11, 서울	제2차 한 · AU 정책협의회	· 우리 측: 아중동국장 · 상대 측: AU 상주대표위원회 다자협력소위 대표	· 한 · 아프리카 파트너십 발전방향, 한 ·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현황, 향후 협의 계획 등 논의
2018.10.12, 서울	제1차 한 · 아랍에미리트 외교 · 국방 2+2 차관급 회의	· 우리측: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보 · 상대측: 국방부 차관, 외교부 정무차관보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을 외교 ·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
2018.11.9, 서울	제12차 한 · 이스라엘 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외교부 아태차관보	· 혁신, 창업,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중동 정책협의회

일자/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2018.5.4, 서울	제8차 한 · EU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대외관계청 중동 · 북아프리카국 중동실장 대행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시리아, 이란, GCC, 리비아 정세 등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 현안 논의
2018.8.23, 도쿄	제5차 한 · 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외무성 아중동국장	
2018.11.13, 파리	제4차 한 · 프랑스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외교부 중동 · 북아프리카국장	

중동 관련 국제회의

일자/장소	회의명	참석자	논의 요지
2018.5.3~4, 서울	제4차 한 · 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국내외 중동 전문가 정부 관료	· 이라크, 시리아 정세 · 마그레브 정세 · 이란 핵합의 전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2018.10.31, 아부다비	제15차 한 · 중동 협력포럼	국내외 중동 전문가 정부 관료	· 4차 산업혁명 시대 한 · 중동 협력 파트너십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일자/장소	회의명	수석대표	주요 내용
2018.6.4~6, 아디스아바바	제1차 믹타(MIKTA) 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믹타 각 국장급 인사	· 아프리카 평화안보, 아프리카 경제개발, AU 내 개혁 및 아프리카 내 지역기구 관련 제도 등 논의
2018.11.13, 파리	제7차 한 · 프랑스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 우리측: 아중동국장 · 상대측: 아프리카인도양 부국장	· 아프리카 주요 정세, 대아프리카 정책, 한 · 프랑스 협력 방안 등 논의

5 대아중동 우호협력 증진

1) 제11회 아랍문화제

제11회 아랍문화제가 2018년 5월 2~6일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아랍문화제는 총 12개 주한 아랍대사관이 참여하는 아랍 국가홍보관을 비롯해 아랍의상 체험, 아랍테마 포토존 및 아랍풍 휴식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아랍을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2) 이프타르 만찬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2018년 5월 29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해 국내외 인사 150여 명을 초청해 장관 공관에서 이프타르(Iftar) 만찬을 개최했다. 이프타르란 '금식을 깬다'라는 뜻으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 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시작하는 첫 식사로서 외교부는 2004년 이래 해마다 라마단 기간 중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해 왔다. 이프타르 만찬은 우리나라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관용 및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를 지니면서 이슬람권 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18년도 행사에는 주한 중동·아프리카·아시아 지역 이슬람권 외교단은 물론이고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산업계, 한국아랍어문학회, 국내 이슬람국가 출신 유학생 및 차세대 인사 등 학계·문화계·언론계·경제계의 다양한 분야 인사가 참석해 평화와 이해, 나눔과 배려라는 라마단의 의미를 되새겼다.

3) 제7회 아랍영화제

제7회 아랍영화제가 2018년 6월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아랍영화제에서는 각각 12편의 아랍 영화를 상영했으며 아랍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은 카우테르 벤 하니아(Kaouther Ben Hania) 감독 등을 초청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오픈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6 2018년 아중동 주요 이슈 관련 우리 기본 방침 및 관련 활동

1)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우리 정부는 ISIS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1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반ISIS 국제연대의 5개 실무그룹 중 안정화 지원 및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2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반ISIS 국제연대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ISIS 탈환 지역에서 이라크 정부의 복구 노력 및 피란민 복귀와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이라크안정화기금(FFIS)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라크의 인도적 수요 대응 및 안정화를 위한 기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 시리아 문제

우리 정부는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 절차와 원칙을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 2254호 및 2012년 제네바 코뮈니케를 바탕으로 한 시리아 국민 주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에 개최된 제2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 참석해 시리아 난민을 위해 1,4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서약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345만 달러를 지원했다.

3) 이란 문제

유엔안보리 및 미국, EU의 대이란 제재가 P5(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과 이란 간 이란 핵합의(JCPOA)의 체결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해제됐으나 미국은 2018년 5월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응반

을 구성해 미국과 협의한 결과 2018년 11월 중국, 인도,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 지위를 180일간 확보해 이란산 컨덴세이트의 지속적인 수입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재 복원 이후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 국민을 위해 2018년 12월 의약품을 지원했다.

4)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그 기본 축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라는 기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재건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에 무상원조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개최된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지원 장관급 특별회의를 계기로 정규기금 외에 가자지구 의료센터 지원 사업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5) 리비아 문제

우리 정부는 가산 살라메(Ghassan Salame)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추진하는 리비아 행동계획(LAP: Libyan Action Plan)에 따라 리비아의 모든 정파 간 합의를 통해 리비아가 국가통합과 재건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리비아에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온 우리 정부는 2018년 리비아 안정화기금에 1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등 총 1,068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6) 예멘 문제

우리 정부는 2018년 12월 정부군과 반군 간 타결된 스톡홀름 평화 합의를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이행해 예멘 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예멘 우방국회의에 참석했으며, 예멘의 극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예멘 인도적 위기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 등 국제기구 · 협의체를 통해 2018년 4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2008~2018년 간 1,425만 달러 상당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대예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동참했다.

7)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18년 3월 AfCFTA가 제10차 아프리카연합(AU)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이후 한 해 동안 12개국이 비준해 공식 발효를 위한 22개국 비준 조건의 절반 이상이 충족됐다. 우리 정부는 AfCFTA가 아프리카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동 협정 추진 동향을 긴밀히 관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 설립된 한 · 아프리카재단을 적극 활용해 12월 '2018 서울 · 아프리카 대화', '한 · 아프리카 청년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와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6절
지역 간 외교

1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를 주제로 개최된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무역 질서 보호, 포용적 성장, 경제 디지털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비전을 제시하고 ASEM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아시아 · 유럽 간 연계성 강화 노력과 맞닿아 있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ASEM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2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은 1992년 터키 주도로 흑해 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 수송로이자 자원이 풍부한 흑해 연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부문별 대화동반자 지위로 BSEC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

외교부는 BSE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8년 9월 27일~10월 2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조달청, 서울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전자정부 사절단(단장: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을 BSEC 회원국인 그리스와 루마니아에 파견하고 고위인사 면담, 제8차 한 · BSEC 정보통신기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정부기관 간 구체적인 정보통신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2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39차 BSEC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문별 대화동반자 지위를 갱신했다.

3 제5차 한 ·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Korea-Pacific Island Countries Senior Officials' Meeting)

10월 23일 제5차 한 ·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가 13개 태평양도서국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사무국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측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4 남아시아지역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우리나라는 서남아 지역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위해 2007년 SAARC에 옵서버로 가입했으며 2010년부터는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9월 20일 서울에서 '한국 · SAARC 협력: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제9차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가 개최돼 우리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한 한국 · SAARC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5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아시아 · 아프리카의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IORA의 대화상대국[5]으로 정식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향후 인도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 다변화 및 신남방정책 추진에서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IORA 대화상대국 가입 이후 첫 활동으로 12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양 지역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양협력 고위패널'에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해 해양 분야 협력에 관해 IORA 회원국과 협의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5) IORA는 인도양 연안 국가 간 경제 · 사회 분야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로 1997년 인도와 남아공 주도로 출범했으며 22개 회원국 및 9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돼 있다.
- 회원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디브,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 대화상대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 터키.

6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6]

강경화 외교장관은 2018년 8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제25차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북한 등 전체 2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신뢰 구축 및 예방외교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국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 · 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는 재난구호(2016~2018) 및 군축 · 비확산(2018~2020)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재난관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2019년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회기간총회(ISG: Inter-sessional Support Group)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6) 정치 · 안보 문제에 관한 역내국 간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1994년 출범한 정부 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의체이다.